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기고

문상필

사단법인 광주공동체 상임대표·전 광주시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잘못한 일본에게 돈을 받아야지, 동냥해서 준 돈은 절대 안 받습니다.”

정부의 강제징용동원 해법을 발표한 날, 14살에 끌려간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입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전개된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내놓은 말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기쁨을 더 부은 격이다. “억울해서 못 죽겠다” “끌려 갔을 때보다 더 치욕적인 수모다”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항의했다. 현행 민법에서도 피해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변제는 무효다.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뭘까? 가해자 일본에게 납작 엎드리는 현 정부의 태도가 궁금하다. 전혀 미래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이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려오지 않는다.

모든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생채기를 만들고 있다. 집권 9개월째, 윤석열 정부의 정책 행태를 보면 볼수록 이제는 어디로 튈지 무섭기까지 하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는 없다. 단체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용서와 화해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안 한다고 중재자가 나설 문제

도 아니다.

최근 학폭으로 조명 받은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자녀 학폭 사건과 겹쳐진다. 어린 10대 피해자는 치유되지 않았는데, 어른들끼리 힘겨루기로 짓눌려 덮은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10대 때 일본에 강제징용당한 피해 할머니들이 90세가 넘도록 차가운 거리로 나와 싸우는데, 그 피해부모가 따뜻한 방에서 가해자(일본)와 함께 화해 선언을 한 꼴이다.

일상사의 사건 처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외교적으로 더더욱 해서는 안 될 급단의 영역까지 건들고 있다. 외교는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 싸움이다.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고 발표했었으니 일본은 손 안 대고 코를 풀었고 표정을 어찌 할 수 없어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가 간의 책임 문제를 더는 건들지 못하게 했더라도 개인의 소송은 막지 못한다. 개개인의 불법 피해는 국가가 나서서 소멸시킬 수 없는 게 국제법이다. 국가가 나서서 노동 미수금을 소멸시키고 감금 납치한 인권침해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이것은 자국의 정부가 만든 명백한 2차 가해다. 그것도 자기 부모가 나서서 자식이 맞은 것이 부끄럽다고 가해자에게 맞은 것도 억울한데 부모가 나서서 자기 자식을 두들겨 패고 소문나지 않도록 단속할 테니 가해자에게 격정하지 말라고 선언한 모습이다. 바보 천치가 아니고 가능한 일인가? 보통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이 정부는 너무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하니 창피하고 당황스럽다.

현 정부가 보여준 외교적인 행보 앞에 국가의 이익은 없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생억지를 쓴 것처럼 매년 국가의 위신을 날리고 있다. 세련미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기를 희망할 뿐이다. 법으로도 양심으로

도 사상적 입장을 떠나서도 납득할 수 없는 통치행위, 외교적 처신은 국격도 품격도 자격도 의심스러운 광경 앞에 실소조차 흘릴 수 없다.

살아 있는 모든 민족혼은 2023년 3월 6일을 21세기 신국치일로 쓰고 있다.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이 가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대신 내는 것으로 결정, 그 3자 변제를 발표했던 이날은 일본정부의 발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였다는 점에서 웃프고 놀랍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책’을 두고 반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의 직접 사과와 전범 기업의 책임있는 사죄는 여전히 빠졌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일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 충격의 정점에는 2018년 우리 대법원의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불법이며, 일본 기업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다.

세간의 여론은 장작불의 가마솥처럼 들끓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을 무시하고, 가해자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피해자 정부가 대신해 하면서 일본과 협상과정의 결과로 내놓은 게 아니었다. 우리가 알아서 선언하고 일본정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협상은 고사하고 결론을 선언한 점에서 기가 막히다.

3월 6일 신국치일, 독립운동으로 희생하신 선열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날이다. 양식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매국적인 굴욕 외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이유다. 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외교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과거, 일본이 식민지배를 통해 저지른 인륜적 과오를 두둔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최선의 외교인가?

기고 조익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 내일이 빛나는 대중교통 통합 ‘광주교통공사’ 환영

최근 민선8기 광주시가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을 발표했다.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시민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성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결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광주교통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의 철도 운영 중심에서 대중교통 시스템 전반까지 아우르는 광주 교통의 컨트롤 타워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교통을 일원화하고 통합 관리 운영해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교통공사의 탄생은 지역 대중교통 체계 개편의 대전환을 이끌어 낼 전망이다. 민선8기는 일찌감치 교통 관련 기관 및 업무의 다원화, 관리와 운영 주체 분산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비효율적 재정운용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을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공사를 중심으로 유사 중복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 관련 기능들을 통합해 시민 편의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에는 공공기관장 임명권 등 정치적 기득권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시민에게 책임지는 행정을 추구하겠다는 광주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사실 교통공사의 필요성은 비단 광주만 느껴왔던 것이 아니다. 2006년 부산을 시작으로 이미 인천, 서울, 대전, 대구, 세종 등 대도시들이 효율적인 통합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다투어 교통공사를 설립해 왔다.

이들은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지하철, 시내버스, 철도, BRT, 공유형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한 교통수단간의 연계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중교통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광주 역시 광주교통공사 설립을 계기로, 우

리 지역민의 생활 패턴과 지역 발전 방향에 맞도록 대중교통 운영 체계와 재정 효율화 등에 대해 새로운 고민을 펼칠 때가 온 것이다.

광주교통공사가 설립될 경우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시내버스, BRT, 공유 자전거, 벽지노선 버스 등 다양한 환승 수단에 대해 훨씬 더 폭넓고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각 대중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광주 전역 어디든 대중교통과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보행친화 도시 구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과 교통문화 발전 등도 함께 이뤄지며 시민 행복의 발판으로 기능하게 된다.

다양한 교통수단의 연계는 도시발전뿐만 아니라, 지상과 지하를 아우르는 도시공간의 미학도 누리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승용차 중심의 통행량이 대중교통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길을 따라 상업·문화 시설 등이 등장하고, 지하철역의 공연과 자전거 도로를 따라가는 벽화, 버스 승강장의 시한 줄 등 생활 속 문화를 만끽하는 삶도 머지않은 미래가 됐다. 대중교통의 통합은 시민의 새로운 기회가 피어나는 광주, 내일이 빛나는 광주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집대성(集大成)’이란 말이 있다. 무언가를 종합해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을 때 쓰는 말이다. 맹자는 옛 성현들의 능력을 통합해 낸 공자를 가리켜 ‘집대성’이라 하며, ‘금성옥진(金聲玉振)’이라 표현했다.

금성옥진은 ‘쇠(鐘)를 쳐서 소리를 시작하고 옥(磬)을 쳐서 소리를 거두어듬을 음악의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광주교통공사가 우리 지역 대중교통의 통합이라는 시대의 사명을 집대성할 힘찬 첫걸음이 될 것을 확신한다. ‘광주 대중교통의 통합과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시민의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음악을 거두어 내도록 광주도시철도가 그 중심에서 힘껏 뛰겠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후 활동가들이 “위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경찰의 물대포를 맞으며 시위하고 있다. 헤이그=AP/뉴시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전남일보 e-mail: webmaster@jnilbo.com

전화: (062)510-0321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충장로관**


▶ 전 편 천연가죽 리클라이너 쇼파석 (키보드보유)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스톤다마켓 충장로점 062-222-7733

**롯데시네마 충장로관**

|    |                                                                         |
|----|-------------------------------------------------------------------------|
| 1관 | 대외비                                                                     |
| 2관 | 스즈메의 문단속                                                                |
| 3관 | 서치 2/카운트                                                                |
| 4관 | 대외비/명몽이                                                                 |
| 5관 | 더 퍼스트 슬램덩크/콜 제인                                                         |
| 6관 | 스즈메의 문단속/크리드 3                                                          |
| 7관 | 뚝뚝뚝/6번 칸                                                                |
| 8관 | 스즈메의 문단속<br>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br>앤티맨과 왓스프:퀸텀메이아<br>바다 탐험대 옥토포닉 육지수호 대작 |
| 9관 | 앤티맨과 왓스프:퀸텀메이아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길 12



**전용 주차장**  
 <주간&야간> 신동아 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첫영화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

**제휴 주차장**  
 <주간&야간> 동아주차장, 파레스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오전 09:00 - 마지막 영화까지 !!

<주간> 황금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오전09:00-오후20:30까지

※ 3시간 무료 주차이유,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드림플러스파크스 이용시 1시간 30분 무료주차 가능(예외: 3월 내내 300명 한정)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